

## 흑백으로 그린 작가의 고독 작품 속 독백으로 감성 선사

August 28, 2023 | 서지혜 기자

Page 1 of 1



부산 국제갤러리에 고(故) 최옥경의 드로잉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 흑백으로 그린 작가의 고독 작품 속 독백으로 감성 선사

### 최옥경 회고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따스히 받아드리는 것.’

한국의 대표적인 여류 추상화가 최옥경  
(1940~1985)의 시집 ‘낯설은 얼굴처럼’  
의 첫 장에 쓰여진 문구다. 작가는 1972  
년 첫 번째 미국 체류를 마치고 잠시 한국  
으로 돌아와 활동하던 중 유학시절 쓴 45

美 유학시절 쓴 시집삽화 등 전시  
종이작업 26점·인체드로잉 8점  
10월 22일까지 부산 국제갤러리

편의 시와 16점의 삽화를 엮어 이 시집을  
발간했는데, 작가 스스로 ‘뿌리를 흔드는  
경험’이라 표현했을 만큼 당시의 생경한  
환경과 지극이 잘 드러나있다.

이제는 현책방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 시집 속 삽화로 소개된 흑백 드로잉 작  
품을 잔잔히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25일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 국제갤러리는 이  
날부터 10월 22일까지 최옥경의 개인전  
‘낯설은 얼굴처럼’을 진행한다.

최옥경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갤러리와는 네 번  
째 작업이라고 한다. 이번 전시에 소개  
된 작품은 흑백 종이작업 26점과 크로

키(인체 드로잉) 8점이다.

드로잉이라니 어떤지 재미없게 느껴  
지지만 작품은 채색화 못지 않게 꽤 흥  
미진진하다. 사실 최옥경의 채색화는 강  
렬하다. 빨강, 노랑, 검정 등 강한 색을  
사용해 커다란 아수를 네모난 상자에 구  
겨 넣은 듯 성나 있다. 최옥경의 채색화  
작품을 기대한 이들에게 이번 전시는 생  
경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속에 적힌 ‘심장은 외로  
운 마음 안에 있다(Heart is in the lon  
ely heart)’나 ‘때가 되면 해가 뜰까(W  
hen the time comes will the sun ris  
e)’ 등의 텍스트 덕분에 작품은 보는 이  
에게 채색화 이상의 다채로움을 선사한  
다. 이는 종종 그가 의식의 흐름 중 즉흥  
적으로 내뱉은 단순한 언어에 불과하지  
만 마치 시화처럼 ‘글’이 주인공인 그림  
이 되어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한다.

최옥경은 남성 일색인 한국 미술계를  
벗어나 작가로서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1963년 서울대 졸업 이후 유학을 결심한  
다. 미국 유학 시절 그간의 그림 방식에서  
벗어나 다시 기본으로 충실해지는 의미로  
시작한 드로잉은 끝없는 연습이 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실험하던 작가 개인의 고  
뇌를 담아낸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이번  
전시의 드로잉은 작가의 고독한 미국 생  
활 중 일상을 채우던 생각의 파편을 보는  
듯하다. 글·사진(부산)=서지혜 기자